실제 삶에 십자가 적용하기

(갈6:1~10)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실제 삶에 십자가 적용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교회에 신앙의 혼선을 빚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잖아요?
이제 막바지에 달하면서 이제까지의 갈라디아교인들에게 썼던 모든 권면과 나무람과 교훈들을 총망라해서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마쳐지는데, 오늘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만일 무슨 범죄 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잘 바로잡고 나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자리를 지켜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범죄 한'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파라 프토마티'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프토마티'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뜻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떨어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범죄 한'이라는 단어에요, 근무이탈 혹은 신분이탈 지위이탈,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가서는 안 될 곳을 간다든지 또는, 장관의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파라 프토마티' 범죄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근무이탈, 기독교인의 신분이탈, 기독교인의 지위이탈은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사람들아,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십자가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모든 범죄가 샘솟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모든 행위와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꼭 승진하고 싶다, 이거 뭐 나쁜 생각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승진을 해야지 안 해도 됩니까? 승진하겠다는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우리 자식을 한 번 잘 길러봐야겠다.
근데 이러한 모든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생각들이 마음이 십자가를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고, '파라 프토마티' 범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세상일에 마음을 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마음을 쓴 만큼 일을 이루어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돈 버는 것, 돈 좀 많이 벌어야겠다, 그거 사람 죽이는 생각 아닙니까? 못 견뎌요.
그리고 돈 벌어야겠는데 안 벌리잖아요?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분이탈 하지 않는 것이고 지위이탈, 근무이탈 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 터득하세요.
그런데 십자가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과를 올려야겠다, 사장님께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게 다 범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머물고 있지 않은 상태면 무슨 짓이든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어요.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7, 8절에 우리 자주 인용도 하고 듣기도 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면 꼭 무슨 계명을 어기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줄로 아시는데,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죄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죠? 마음심장을 꺼내서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마음이 매달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게 죄라는 말이, 바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라는 말과 통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위해 심습니까?
모든 삶의 순간에 성령의 활동이 나타나야 되요.
이건 꼭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맨날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될 분들은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돈을 위해 심지 마시고 승진을 위해 심지 마시고 성과를 위해 심지 마시고, 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 심으세요.
성령을 위해 심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매순간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왔는가, 펄펄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획 저 계획, 이 소원 저 소원을 갖고 있는가, 확인해보시면 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소원을 갖고 어떡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돌아보라는 얘기에요, 그게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인류문명의 5대 발상지에서 발생하고 번영을 이룬 모든 문명이 하늘나라의 화폐로 시가 0원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문명이다, 기계문명이다, 굉장하잖아요? 다 의미 제로입니다.
천국의 화폐가치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가짜에요.
인류문명? 역사? 다 가짜에요.

세종대왕의 업적? 다 가짜에요.
이게 가짜라는 사실이 반드시 느껴질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왜 이렇게 찬란한 문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시느냐?
동행하지는 않으시면서 허락은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테스트에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것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모두가 다 멋지고 화려하고 굉장합니다,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인류문명에 대해 인류역사에 대해 이 세상에서 발전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 유행에 대해 죽으세요.
왜요? 기쁨을 제거하는 겁니까, 만족을 없애자는 겁니까? 절제금욕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제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함에 있어 절제하지 마세요.
낭비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에요.
TV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무도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대통령? 장관? 재벌총수? 하나님과 연결된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더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을 때 범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범죄에요.
근데 오늘 본문 2절,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짐을 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김 집사님의 짐을 지고, 김 집사님은 내 짐을 집니까?
짐이라는 게 생활의 짐이에요, 어떡하면 질 수 있어요?
이거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못 집니다.
자, 십자가가 공통점인 사람들끼리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항상 눈에 밝히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짐을 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빠들 네 명이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에 모여서 그 차의 트렁크에 네 사람의 짐들을 실어요.
어른 남자 장정 네 사람이 승용차에 타면 자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배낭은 다 트렁크에 넣고 몸만 딱 자동차 안에 타지 않겠어요?
요 상태를 잘 생각해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짐을 지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십자가를 공통적으로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십자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서 십자가 얘기를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게 되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생활의 짐들을 다 트렁크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트렁크 안에 짐을 넣은 네 사람이 차 안에 타고 등산하기 위해서 갈 때, 차 안에서 뒤에 있는 짐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통적인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공통적으로 생활화되고 사람들끼리 만나면 십자가 얘기를 먼저 하게 돼있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생활의 짐으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오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니까, 서로서로에게 십자가를 확인시켜 주면서 생활의 짐들이 마음에서부터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마음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아버지께로 가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요,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 아버지만 계시면 된다'라는 것을 조금 미흡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얘기를 나누다보면 하늘에 아버지만 계시면 되지, 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안부를 서로 묻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안고 있었던 생활의 짐이 얘기가 되는데, 그 짐에 대해서 박 집사님에게 생각이 떠오르면서 박 집사님이 그 짐에 대한 성격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다보니까 김 집사님에게 그토록 무거웠던 생활의 짐이 전혀 무겁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내 짐 네 짐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내 생활의 짐에서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이 집사님의 짐이 한데 묶이면서 이 모든 짐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고, 그 삶의 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무에게나 막 주어집니다, 예측불허로.
그래서 박 집사님은 자기 생활의 짐에 대한 답은 못 얻어도 이 집사님의 생활의 짐에 대한 답은 얻는 겁니다, 그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박 집사님을 통해 알려질 때 박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박 집사님 자기의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 집사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박 집사님을 통해 나타날 때 박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삶은 한 군데로 모아지고, 한 군데로 모아진 삶을 하나님께서 한 주먹으로 쥐시면서 거기서 필요한 대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사방팔방에서 나한테 주어지고, 나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고, 그리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다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함께 어디를 간다든지 함께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면서 짐을 지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강릉에 가끔씩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서 대화를 하다보면 꼭 이 순서를 따르게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던 분들이 제가 하는 말,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들에 의해서 그 납덩이처럼 내리누르던 마음의 짐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지옥이 한 순간에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통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 머리털 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그 동안 나는 너무너무 지옥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이면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로 마음이 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짐들이 하나님의 손에 한꺼번에 묶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적용될 때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6절에서도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그런 사도들, 따로 직업이 없잖아요.
말씀 전하러 돌아다니느라고.
근데 이 분들과 공통점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붙잡혀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삶의 형편과 나의 삶의 형편을 한 손에 쥐시고, 내 삶의 형편에서 갈 수 있는 것 중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거나 쌀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구마농사를 지어 고구마가 많이 있다, 고구마를 그냥 사도바울에게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구마를 떨어뜨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도바울 관계로 끝나잖아요.
근데 김 집사님을 통해 고구마를 먹이면, 김 집사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고구마 먹고 살고, 김 집사님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
아, 요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 3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 '아무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서 장가가고 시집만 가도 벌써 아내 되고 남편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된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말을 누구한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바울이 너무 심하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것이라도 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처럼 흑인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무것이 된 겁니까?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이 벌면 아무것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사도바울이 아무것이라는 얘기, 또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갖고 있는 게 없으면서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아무것이란 뭡니까?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와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행동해도 얼마든지 부귀영화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중국의 모든 황제들의 부귀영화는 예수그리스도를 몰라도, 지금도 아마 시진핑 주석이 예수님 모를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에 그런 관직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는 겁니다, 다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 되요.
신천지가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사람이 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부귀영화가 다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아무것'이냐?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것, 그것만이 '아무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일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얼마나 굉장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참새 한 마리에서 발견한 하나님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누가 믿음이 더 큰 사람이냐?
사람들의 눈에 띠지 않는 작은 일에서 사람들이 경악할만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발견해내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자기에게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 눈에 보일만한 일은 하나도 없어도 참새 한 마리 먹이시는 것과 같은 작은 일, 내가 먹고 사는 일과 같은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삶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때 나 스스로 나에게 자랑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something이고 그것이 바로 아무것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그냥 밖에 서계시면서 삶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하셔서 대통령 된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 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감이 오십니까?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신앙의 고수가 되신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대형교회 당회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신앙의 대가에요.
그리고 그게 돼야 되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올 수 있습니다, 허락하십니다.
복음이 참으로 역사하지 않아도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될 수 있어요.
신천지 통일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교인 세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해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래서 그 세 사람 모두가 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삶의 적용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참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 때, 모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발견될 거예요.
그때 나 스스로에게 내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남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까짓 일이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나 아니에요, 너무너무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크게 발견한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교인들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기억하시고 생활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실제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에 신비한 경험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